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성경: 전도사 3장 10-14

Tag: 치유와 영적전쟁 >healing & Spiritual Warfare

10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 3:10-14)

수고함이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수고 (受苦):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씀. 특별히 육체적 노동을 말함. -육체적 노동이란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

창세기 3: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3:19)

저주 이면서 일종의 숙명과도 같은 말씀.

모든 사람은 수고로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해도 인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게 마련이며, 땀방울은 생존의 문제이다.

과거에는 자연-특히 땅과의 전쟁이었고, 근대는 기계와의 전쟁이었

고, 현대는 내가 더 많이 얻으려는 사람들과의 전쟁이고(계급투쟁), 미래는 나와 다른 가치관과의 전쟁이다.

안전확보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 한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창세기의 낙원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전도서 3장 13절에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땀이 날 정도로 일하면서 그것을 낙으로 여기라는 뜻인가, 뼈빠지게 일하고 버는 돈으로 낙을 누리라는 뜻일까?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노동을 좋아하고 즐기라는 뜻인지, 선한 노동을 즐거워하라는 뜻인지, 노동이 고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좋은 것이기에 즐거워하라는 뜻인지.

-원문의 번역에는 ‘좋다’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다.

12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앞선 12절에도 ‘토브-good’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기뻐하며 선(good)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good,좋은)것은 없다’

-대부분의 가장은 아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일한다.

-매일 하는 일이니 몸에 익어 그닥 어려워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 자체를 보람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즐겁게 일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 힘겨워하고, 마지못해 일하고,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일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두렵기도 하고, 이미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 자들 틈에서

갑이 아닌 을로 일해야 하기도 한다.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기회마저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은 적당히 선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실수를 덮어씌우기도 하고, 뒤집어 쓰기도 하며, 질투도 하고, 부당함 앞에서 의분에 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날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잊어 버릴 것 잊어 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것 맡기고, 내가 변해야 할 것 잘 정리하는 것이 복이다.

-사소한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결국 일을 통해서 보람을 일구어내는 것은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와 신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쉽게 선하게 일하려는 의지가 꺾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터 현장은 처참한 지경이다. 민노총은 특정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업무방해 폭력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으로 노동 자체를 악마화 하였다.

-따뜻한 정감이 오고가야 마땅한 일터가 살벌한 갑을관계가 형성되면서 사소한 기싸움현장이 되었다. 요즘 MZ세대간 갈등이 화두가 되었다. 직장 내에서 Z세대의 사수로서의 M세대가 겪는 갈등이 심하다는 내용이다. (요즘 M세대는 눈치가 없는게 아니라, 눈치를 보려고 하지 않음-특히 사내 잔심부름,약간의 노동 등; Z세대의 특징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Z에게 M은 꼰대, M에게 Z는 꼰대임을 들키고 싶지 않는 자.)

*Z세대;합리적인 사고와 소비, 유튜브족(재미), 후두엽이 발달되어 감각적, 영상사고 세대, 개성적. 윤리적

*요즘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비롯한 부부간의 역할 문제로 갈등이

심각하다. 어느 가정은 아예 대화를 존칭어로 바꾸었다고 함.

요즘 우리나라는 남자라도 요리를 즐기는 남자가 상남자.

*노동은 둘째로 치고 요즘은 감정노동도 노동이라 친다. 사람 기분 맞추는 것이 가장 고된 노동인데, 감정은 매우 미묘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커서 사실은 오래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

*또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신경 쓰기 보다는 그것을 초월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며칠 전 영등포시장에서 가격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기분 상할만한 말을 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묘해졌다. 기분 상해 해야 할까, 내 기분 상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가, 하는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였다.

*결론은 어찌 되었든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자 였다. (설교에 언급한 것 보니 잊어버리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확실히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많아진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말을 곱게 하는 기술이 없는 자들은 아예 입을 다물고 사는 경향도 생겨났다.

*요즘 우리나라는 중노동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가벼운 노동과 정신노동, 감정노동에 힘겨워한다. 그래서 말하는 기술이 중요해졌고, 말로 인한 분쟁이 많아졌다.

*그러지 말고 가벼운 노동이라도 즐기는 민족이 되자.

*어린이들은 한가지 말 표현을 배우면 며칠동안 그 말을 연습하면서 말의 재미를 익힌다. 어른들도 그래야 한다. 말을 새로 배우면서 즐거워해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을 적고, 그 말들을 문법적으로 다듬고,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고 100번 이상 억양을 달리

하면서 연습하자. 말 잘하기 위한 노동을 즐기자.)

*남녀 노소 구분없이 가사노동을 익히고 즐거워하자.

*재미가 붙기까지 재미없는 일을 훈련하자.

*사소한 개인 감정에 흘리는 눈물은 초 단위로 줄이고, 나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늘리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의 기도를 늘리자.

*기도 노동을 습관화 하며, 더 고귀한 예배를 위한 수고를 즐거워하자.

*수고로움을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의로운 민족 성경: 로마서 11장 11-36절

Tag: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is)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도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오

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

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 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27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 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혹을 입었는지라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 시는 공혹로 이제 그들도 공혹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혹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 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11:11-36)

전세계의 한국학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다.

채널 이름이 '유튜브 지식 쇼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가 그 중 한분.

-한국인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물질적 풍요'를 선택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런데 그 이유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

조선말부터 100여년을 지내온 한민족 공통의 가치다.

잘살아보기 위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친 나라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하버드대에서 한국학으로 박사학위)

-저서;제국과 의로운 민족(제국은 중국)-한중관계 600년 사

-특이하게 '의'로운 민족이라고 명명함. 이 단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

-한반도가 단 한번도 중국의 일부가 되지 않는 이유. (독특한 정체성, 지식(중국의 한국지식보다, 한국의 중국지식이 훨씬 많았다. 사대를 통한 독립.)

*'사대'는 명과 다른 외적의 한반도를 향한 간섭을 막는 방식이었다.(국제관계에서 줄타기의 명수)

*사대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시 한국사회를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

-시대는 변하고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을 이겨낼 동남아 국가는 없었다.

-소련과 일본의 야망을 견제하려는 영국. 일본보다 먼저 조선의 문을 두드린 영국. 그러나 조선은 쇄국정신, 중국 사대, 외세 무시, 눈

먼 외교 등으로 당시의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을 무시함.

-하는 수 없이 영국은 일본에 총포를 제공하여 러시아를 견제토록 함.

-일본은 앞선 문물과 무기로 동남아시아를 제패하려는 야망에 사로잡힘.

-한국의 깨어있는 무리들은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공산주의, 쇠국 사대주의-유교 율법주의, 일본식 서양동경세력, 농자천하지대본-동학혁명세력, 미국-기독교 세력 등이 한반도에서 격돌함.

-6.25 사변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 모든 세력이 뿔뿔몽쳐 전력 질주하게 됨. 여기에서 미국-기독교 세력이 가장 분발함. 분단현실이 경쟁을 부추김. 결과는 남한의 승리.

-북한 파견 남파 세력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를 이끌어 냄.

-이후로는 남파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옥신각신 하나, 이들도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함. 이들도 지쳐있음(소망도 없음).

-한국에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이겨내지 못함.

-2020년대의 한국기독교는 개혁필요충분조건으로 가득함.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함.)

-1600년대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였다면, 2020년대 종교개혁은 '하나님나라로 나아가자'가 되어야 함. back to the future.

*확인되지 않았고 역사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알이랑 민족'이 곧 한민족이라는 목사님의 주장이 있음.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다른 독특한 측면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점.

-단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민족성이 여러 민족들에게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한민국과 비슷한 나라는 세상에 없음.

-외형적으로는 중국과 일본과 비슷하지만, 실속은 전혀 다름.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 전혀 민주주의가 아님.

-1000년 이상 지나온 동안 왕조가 3번밖에 바뀌지 않음.

-현재로서는 혈통적으로가 아닌, 성향으로서 양반과 상놈만 남아있음. (성경적으로는 야곱과 에서)

-유교 발생 중국보다 더 유교스러운 한국. 유교, 불교, 기독교가 발생국보다 더 발달한 영적인 나라. (토속신앙은 어느나라든지 비슷한 형태의 토속신앙은 같음-외국 종교를 잘 모방하는 토속신앙)

-하나님께서 말세에 쓰시려고 한반도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 민족을 숨겨두시고 잘 숙성시켜 놓으심.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심.